

전 남

올 봄 전국 농작물 기후변화 피해 5만3천ha

전남에 60% 2만5천ha 집중

이상기온 농업분야 중·장기 대책 마련 시급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의 체계적인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황영철(강원 홍천·홍성)국회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봄철 유례없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일조량 부족피해 1만4105ha· 냉해 피해 3만8763ha 등 모두 5만2868ha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전남지역의 경우 20개 시·군에서 전국 59.9%인 2만3245ha(2만1411농가)의 농작물이 병해를 입었다.

전남지역 일조량 부족 피해면적은

1611ha(전국 11.4%)로 ▲피해면적 50%이상 1355 농가 ▲30~50% 4025 농가 ▲30%미만 480 농가 등 모두 5860 농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상기온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황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기후변화와 농업'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의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연구가 ▲기온과 강수량 변화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에 치중돼 있고 ▲소규모 온실실험에 국한돼 장기 실험지의 실험데이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응은 예측·저감·적응 등이 조화를 이뤄야 하지만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전국의 비 수확량은 전국평균 14.9% 감소하고, 맥류와 과수 등은 재배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영철 의원은 "농업부문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후 피해보상에 그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매우 소극적이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목포 해역 7개 지점

해수 흐름 유속 관측

국립 해양조사원 서해해양조사사무소(소장 김종철)는 9월 한 달간 목포 북항과 영산강 하구인·주요 입·출항로 등 목포 인근 해역 7개 지점에 대한 조류 관측을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는 해양조사선 '황해호호'(776급)가 동원돼 목포항 내외의 전체적인 해수의 흐름을 중요 지점별로 파악한다. 또 조류관측 최신 장비인 자기기록식 유속계를 이용해 해수가 흐르는 방향과 유속까지 관측하게 된다.

서해해양조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와 영산강 하구인에 의한 해양환경변화 파악과 복원 개발에 따른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독 안 높여도 홍수 걱정 없다”

하순 한천면 금전저수지 독 높이기 사업 주민 반발

위원회 구성 사업설명회 거부 등 조직적 대응

한국농어촌공사가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하순 한천면 '금전저수지' 독 높이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한국농어촌공사 하순지사에 따르면 총사업비 265억9600만원을 투입해 하순군 한천면 금전리에 위치한 '금전 저수지'를 '후면 덧쌓기' 방식으로 독 높이를 현재 14.5m에서 17.4m로 2.9m로 올려 총저수량을 현재 324만8000m³에서 482만3000m³로 157만5000m³를 추가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안전성 검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설명회

를 거부하는가 하면 저수지 독 높이기 공사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저수량만으로도 홍수조절과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다"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을 높이면 생태계 파괴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하순지사는 토지와 지장물 등의 보상을 실시하고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공사차질이 우려된다.

농어촌공사는 수자원 확보를 비롯해 ▲홍수조절 ▲농업용수 확보 ▲하천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금전저수지의 독 높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저수지 독을 현재보다 2.9m 높이면 마을이 존립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이 '금전 저수지 증설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과 환경영향조사 및 안전성 평가를 거칠 것"이라며 "주민과 대화 창구를 마련,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영어캠프 서울 나들이

강진군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최근 4박5일간 서울 영어마을에서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초등학교생 79명이 참여해 방송국 체험 등 테마별 수업을 진행했다. (강진군 제공)

추석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립 수산물품질검사원 목포지원(지원장 이근승)은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광주광역시·목포시·나주시를 비롯한 영광·무안·함평 등 8개 군에서 지자체와 수협·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명절 성수기 중에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조기·명태·굴비·옥돔·갈치 등 선물·계수용 품과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간미역·황태 명란 및 핏감을 팔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최근 국내 제작관 련 의혹 수사와 맞물려 환경의 불거리 '황금박쥐 조형물'에 전국적인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군은 지난 2008년 5월 순금 162kg으로 국내 최대의 황금박쥐 조형물을 만들어 일반에 공개, 세간에 화제가 됐다. 하지만 최근 조형물이 순금(24k)이 아니라 합

합금 황금박쥐 왜 숨겼나

금(21k)을 사용(본보 8월 27일자 6면)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군이 지난 3월말 모 대학과 계약을 체결, 6600의 예산을 들여 또다시 자투리 금으로 '오복포란(五福抱卵)' 조형물을 제작하면서 비롯됐다. 황금박쥐 조형물을 제작하며 금 21.5kg과 은 6.67kg이 남아 2년여동안 군 금고에 보관돼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조형물을 만들고 자투리로 남은 금이 있었다면 당시에 투명한 공개를 했어야 했어야 했는데 군은 이런 부분에 대해 미흡했다. 최근 '오복포란' 제



황운학 (서부취재본부 기자)

작은 신임 군수와 당선자 인사위원회 위원들도 모른 채 본보 보도로 알 정도로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이 순금이 아닌 합금으로 황금박쥐 조형물을 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순금으로 제작한 것처럼 과대 홍보한 것은

국민과 관광객을 우롱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공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로 국민과 관광객들이 한치의 의심이 없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한다. 군은 지금

이라도 전시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확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하게 알리고, 이제껏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자체 점검 등을 통해 군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군의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hwang@

전남 녹비작물 재배 전국 절반

보리·호밀 등을 가을 희망 면적 조사

올 가을 전남지역 녹비(綠肥)작물 파종면적이 전국 파종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농업인들을 상대로 녹비 재배 희망면적을 조사한 결과 올 가을 파종면적이 4만8700ha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녹비작물 예상 재배면적

10만7000ha의 4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녹비작물은 벼수확 후 겨울에 다른 작물을 심지 않는 논과 과수원 등에 심어 토양개량과 거름효과를 거둘 수 있어 최근 친환경농업 작물로 각광받고 있다.

종류별로는 녹비효과가 좋아 질소

질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헤어리벤티'가 3만4897ha로 가장 많고 ▲녹비보리 8109ha ▲호밀 3420ha ▲클로버 2274ha 등의 순이다.

전남도는 파종에 필요한 종류별 종자 소요량을 전량 농협무역을 통해 확보하고 다음달 상순까지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윤성호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녹비작물 재배를 통한 토양개량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전남의 친환경농업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전남산 유기농 농산물로 만든

비누 등 '웰빙 케어' 상품 인기

최근 참삼이 열풍에 휩쓸려 전남산 유기농 농산물로 만든 '웰빙 케어(well-being care) 상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해 만든 아토프치료용 입욕제·바디케어·비누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웰빙 케어'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보성 삼백초영농조합법인인 여성초와 삼백초를 이용해 비누와 아토프 치료용 입욕제 등을 개발, 홈페이지(hyejeong.com)와

유통매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안도 '들꽃마루'는 부인 냉증과 위장병 등에 효과가 탁월한 '구절초'로 만든 비누·바디케어로 연간 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신안 (주)백년초와 황토이야기'는 무농약 백년초를 이용해 '백년해라 클렌징폼'과 '바디 스크럽워시'를 개발해 상품화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도 석류를 이용한 스킨로션·영양크림, 오이를 이용한 스킨팩·핸드크림 등 다양한 케어상품 개발에 성공했다. /장필수기자 bungy@

Advertisement for '전북장터' (Jeonbuk Jangter) featuring various food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 (0621576-8600).

Advertisement for 'IPALG 트라이슈머' (IPALG Tri-Shmer) featuring a person in a field and contact information (011-0444, 010-6603-0405).